

# 원효의 화쟁방법 검토

## — 최근 3인의 연구를 중심으로

김영일  
동국대학교 강사  
ykim1015@gmail.com

- I. 머리말
- II. 연구의 역사
- III. 삼설의 정립(鼎立)
- IV. 삼설의 호환(互換)
- V. 맺음말

### 요약문

‘화쟁사상’은 한국불교를 대표할만한 원효의 핵심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화쟁 사상의 중심에 화쟁의 방법론이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에 원효의 ‘화쟁방법’에 대한 연구 성과를 활발하게 발표하고 있는 박태원, 김영일, 김태수 등 3인의 연구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의 연구가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나아가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첫째, 지금까지 이 분야의 연구를 ‘내용상 발전과정’이라는 기준으로 정리해 보았다. 총 3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1기에는 박종홍, 김선근, 최유진 등이 화쟁방법의 핵심요소를 나열하였고, 제2기에는 오성환, 김형효, 사토 시케끼 등이 화쟁의 최고원리를 탐구하였으며, 제3기에는 박태원, 김영일, 김태수 등이 각각의 독특한 관점으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최근 3인의 연구는 서로 정립(鼎立)할 수 있음을 밝혔다. 즉, 원효의 화쟁방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김영일의 연구에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설이 모두 옳다’의 경

우는 연기설에 근원을 둔 ‘문의 사유’에 대해서 탐구한 박태원의 연구와 관련이 깊으며, ‘제설이 옳고 그르다’의 경우는 중도설(중관의 논리)에 연원을 둔 ‘사구 논리’에 대해서 연구한 김태수의 연구와 관련이 깊다.

셋째, 최근 3인의 연구는 서로 호환(互換)할 수 있음도 밝혔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김영일이 말한 ‘제설이 모두 옳다’는 판정일 때와 ‘제설이 옳고 그르다’는 판정일 때 사용하는 방법은 호환될 수 있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박태원이 말한 연기설을 근거로 하는 ‘문(門)의 사유’라는 방법과, 김태수가 말한 중도설을 근거로 하는 ‘사구(四句) 논리’라는 방법도 서로 호환될 수 있다.

### 주제어

한국불교, 원효, 화쟁사상, 화쟁방법, 문(門), 화쟁사례, 사구(四句)

## I. 머리말

한국불교에 관심이 많은 학자들은 1,600년 이상을 내려온 한국불교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불교사상을 꽃피운 인물로 원효(元曉, 617-686)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원효는 당시 한반도에 들어온 대승불교학의 여러 분야에 고루 정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정작 그를 그답게 해준 것은 그러한 다양한 분야의 불교학을 한맛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화쟁사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20세기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현대적인 의미의 불교학이 시작된 이래로, 한국불교분야에서 원효사상은 어느 분야보다도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다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원효의 중관사상, 유식사상, 여래장사상, 정토신앙 등 각 방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이러한 모든 사상을 감싸 안을만한 포괄적인 사상으로서 ‘화쟁사상’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곤 하였다.

이러한 화쟁사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분야로 ‘화쟁방법’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 ‘화쟁방법’이란, ‘원효가 제설을 회통하는데 있어서 사용한 방법론’을 말한다. 원효가 사용한 회통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본고의 제2장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오래전부터 원효의

화쟁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로부터 특히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본고는 이들 선행연구 중에서 특히 최근에 등장한 박태원, 김영일, 김태수의 연구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 매우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 전에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 그들의 연구결과가 대단히 다채롭고 다양하다는 점 등에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아왔다. 본고는 주로 이들의 연구가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몇 가지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지금까지 이 분야의 연구 흐름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둘째, 최근 3인의 연구는 서로 타설을 방해하지 않고 과연 나란히 정립(鼎立)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셋째, 나아가 최근 3인의 연구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타설과 호환(互換)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는, 물론 박태원, 김영일, 김태수 3인이 학계에 발표한 논문들과 저서들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활용한 자료로는 『십문화쟁론』, 『열반종요』을 비롯한 원효가 남겨놓은 현존본들이고, 여기에 그 저작들에 대한 현대학자들의 저서와 논문들이다. 다만, 본고의 연구초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자료인용은 제한하였음을 밝혀둔다.

## II. 연구의 역사

원효의 화쟁방법에 관한 최근 3인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이 분야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들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는, 이 분야의 전반적인 연구 흐름을 그 특징적인 모습에 주목하여 짚어 보고자 한다. 논자는 이 분야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내용상 발전과정’이라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총3기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보았다.<sup>1)</sup>

제1기는, 1966년 박종홍이 「원효의 철학사상」이란 글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원효의 화쟁방법을 모두 5가지로 간추려서 제시하였는데, 화쟁논리는 개합(開合)으로써 중요(宗要)를 밝히고, 입파(立破)와 여탈(與奪)이 자유로우며, 동일(同一)·상이(相異) 있음·없음이 자재하고, 양변을 떠나고 중도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어떠한 말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2)</sup>

또한, 이러한 박종홍의 연구에 자극받아서 이후에는 이와 유사한 연구가 쏟아져 나왔다. 즉, 1978년 김운학은 「원효의 화쟁사상」이란 논문을 학계에 발표하였고,<sup>3)</sup> 1983년 김선근은 「원효의 화쟁논리 소고」란 글을 제출하였다.<sup>4)</sup> 그리고 최유진은 1987년에는 「원효에 있어서 화쟁과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sup>5)</sup> 1991년에는 「원효의 화쟁방법」에 대해서<sup>6)</sup> 각각 의미 있는 글을 발표하였다.

이 중에서 최유진의 연구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화쟁방법을 ‘극단을 떠남’, ‘긍정과 부정의 자재’, ‘경전 내용에 대한 폭넓은 이해’ 등으로 고찰하였는데, 대체로 박종홍의 주장을 바탕으로 폭넓게 고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화쟁과 언어와의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로 고찰하였는데, 이것은 박종홍이 주장한 ‘일미(一味)와 절언(絶言)’이라는 화쟁방법을 좀 더 심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시기를 돌이켜 보면, 원효의 화쟁방법에 대한 연구가 비로소 태동하여 하나의 연구분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960년대에 박종홍에 의

- 
- 1) 이와 같은 논자의 기준에 따르다 보니, 원효의 화쟁방법에 관한 선행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제시되지 못한 경우도 더러 있다. 독자재현의 양해를 바란다.
  - 2) 박종홍은 여기에서 원효의 화쟁이 성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적 근거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그 내용으로, 원효가 『열반장요』에서, “불교경전의 부분을 통합하면 만 가지 흐름이 한 맛[一味]이며, 부처님 뜻의 지극히 공평하고 무사(無私)함을 전개하면 백가(百家)의 서로 다른 논쟁이 그대로 살려져 화회될 수 있다.(統衆典之部分 歸萬流之一味 開佛意之至公 和百家之異諍: H1, 524上)”고 한 말을 제시하였다. 박종홍, 「원효의 철학사상」, 『한국사상사 - 고대편』(서울: 일신사, 1966); 박종홍, 「원효의 철학사상」, 『한국사상사: 불교사상편』(서울: 서문당, 1972), pp.87-132 참조.
  - 3) 김운학, 「원효의 화쟁사상」, 『불교학보』15(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78), pp.173-182.
  - 4) 김선근, 「원효의 화쟁논리 소고」, 『논문집』2(경주: 동국대학교 경주대학, 1983), pp.15-28.
  - 5) 최유진, 「원효에 있어서 화쟁과 언어의 문제」, 『철학논집』3(창원: 경남대학교, 1987), pp.29-49.
  - 6) 최유진, 「원효의 화쟁방법」, 『백련불교논집』1(합천: 백련불교문화재단, 1991), pp.247-269.

해서 연구가 시작됨으로 인하여 ‘화쟁방법’이라는 새로운 연구분야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영향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어오므로 인하여 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연구자들이 원효가 제설을 화쟁하는 과정에 보여준 방법상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박종홍이 화쟁방법의 5가지 원리를 제시한 이후로 김운학, 김선근, 최유진의 글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비록 초기이지만 그 성과는 매우 훌륭하여서, 그 결과가 오늘날 학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2기는, 오성환이 1979년 「십문화쟁의 비교고」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그는 화엄사상에서 말하는 사법계(四法界)와 관련하여 논의하였는데, 화쟁방법의 핵심원리가 사법계 중에서도 ‘사사무애적(事事無礙的)인 방법론’과 흡사하다고 주장하였다.<sup>7)</sup> 오성환의 글은 학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논자는 그가 이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한다.

또한, 1987년 김형효는 「원효사상의 현재적 의미와 한국사상사에서의 위치」라는 글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는 ‘융이이불일(融二而不一)’이라는 일원적인 원리로 원효의 화쟁방법을 풀이하였다.<sup>8)</sup> 그는 『금강삼매경론』의 서문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sup>9)</sup> 서문에 담긴 일심지원(一心之源)과 삼공지해(三空之海)가 진(眞)과 속(俗)의 ‘융이이불일’함을 특히 잘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0)</sup>

또한, 1993년 사토 시케끼(佐藤繁樹)는 「원효에 있어서 화쟁의 논리: 『금강

7) 오성환, 「십문화쟁의 비교고」, 『제2회 국제불교학술회의: 원효사상』(서울: 동국대학교, 1979); 吳成煥, 「十門和諍論의比較攷」, 『アジア公論』Vol.9(韓國國際文化協會, 1980), pp.104-107.

8) 김형효, 「원효사상의 현재적 의미와 한국사상사에서의 위치」, 『원효연구논총』(서울: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7), p.183.

9) 김형효, 「텍스트 이론과 원효사상의 논리적 독법」, 『원효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p.215-222.

10) 김형효, 「원효의 화쟁적 사유와 대승적 세상보기에 대한 이해」, 『정신문화연구』25-2(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pp.107-148.

삼매경론』을 중심으로」라는 글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하였다.<sup>11)</sup> 여기에서 그는 『금강삼매경』과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의 내용을 각 장별로 하나하나 치밀하게 고찰하고 있는데, 각 장에 담겨 있는 원효의 화쟁적 사고방식의 특징이 ‘무이이불수일(無二而不守一)’이라는 점을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다.

이 시기를 회고해 보면, 화쟁방법 연구에 있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볼 수 있다. 1979년 오성환은 지금까지의 연구경향과는 달리 화엄의 사사무애적인 방법론으로 화쟁의 최고원리를 논하였다. 그리고 이후 김형효와 사토 시게끼는 이에 영향을 받아서, 원효 만년의 노작인 『금강삼매경론』에서 ‘용이이불일’와 ‘무이이불수일’이라는 원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원효 화쟁방법에 대한 기존의 연구방식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존에는 화쟁방법과 관련한 특징적인 모습을 하나하나 나열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화쟁방법의 일원적인 최고원리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오성환의 연구로 촉발된 이러한 연구경향이 김형효와 사토 시게끼에 의해서 보다 풍부해졌다고 할 수 있다.

제3기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 박태원은 2004년 「원효 화쟁사상의 보편원리」라는 글에서는, 부분적 타당성을 변별하여 수용하고, 마음지평을 열어야 하며, 언어 환각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3원칙을 제시하였다.<sup>12)</sup> 이후, 2017년 『원효의 화쟁철학: 문 구분에 의한 통섭』에서는,<sup>13)</sup> 앞의 ‘부분적 타당성을 변별하여 수용한다’는 원칙을 ‘문(門) 구분에 의한 통섭’으로 더욱 심화시켜 논의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김영일은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화쟁의 실례를 중심으로」라는 글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하였다.<sup>14)</sup> 그는 오늘날 남아있는 원효의 현존

11) 사토 시게끼(佐藤繁樹), 『원효에 있어서 화쟁의 논리: 금강삼매경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서울: 동국대학교대학원, 1993), pp.1-278.

12) 박태원, 「원효 화쟁사상의 보편원리」, 『철학논총』38(경산: 새한철학회, 2004), pp.23-53.

13) 박태원, 『원효의 화쟁철학: 문 구분에 의한 통섭』(서울: 세창출판사, 2017), pp.1-231.

14) 김영일,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화쟁의 실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서울: 동국대학교대학원, 2008), pp.1-340.

본에서 원효가 화쟁한 사례들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사례들에서 원효가 사용한 화쟁방법을 끌어내고 있다. 즉, ‘화쟁사례’에 드러난 판정유형 중에서의 의미가 있는 2가지 유형을 분석하여 거기에 드러난 화쟁방법을 실증적으로 도출하고 있다.

또한, 2018년 김태수는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사구(四句) 논리를 중심으로」라는 글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하였다.<sup>15)</sup> 그는 이 글에서, 원효가 화쟁논법으로 사용하는 사구의 논리는 사구가 서로 호환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원효가 사용하는 제4구에는 실체성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원효가 사용하는 사구의 논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언어를 떠난 진리를 표현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시기의 활동을 보면, 원효의 화쟁방법에 관한 연구가 바야흐로 절정에 다른 느낌을 준다. 박태원은 ‘문(門) 구분’이라는 화쟁방법의 최고원리를 제시함으로써 해석학적 접근방식을 보여주었고, 김영일은 ‘화쟁사례’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귀납적이고 실증적으로 접근하였으며, 김태수는 ‘사구(四句) 논리’라는 원리에 기반하여 원효의 화쟁방법을 인식론적이고 논리학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이 시기의 특징은, 화쟁방법에 대한 연구가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이제는 종합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존에는 화쟁방식의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열거하거나 최고의 일원적인 원리를 제시하였다면, 이 시기에는 연구자 나름대로의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기존의 연구성과를 충분히 흡수하면서도 나름대로 다양하고 완결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화쟁방법에 관한 연구들을 소개하고 간략히 논평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논자는 그 중에서 한 가지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즉, 제3기에 이르러 화쟁방법에 관한 연구가 절정에 이르렀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제3기 연구

15) 김태수,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사구(四句) 논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서울: 서울대학교대학원, 2018), pp.1-284.

자들이 나름대로 제시한 내용들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하는 점이다.

생각해 보면, 제1기에 등장한 박종홍, 김선근, 최유진 등의 연구는 그 연구결과가 매우 흡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기에 등장한 오성환, 김형효, 사토 시케끼 등의 연구도 크게 다른 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유독 제3기에 등장한 박태원, 김영일, 김태수 등의 연구는 겉으로만 보면 내용이 매우 다양하여, 내부적으로 서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

원효의 화쟁방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가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점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 제3장에서는 3인의 연구성과를 좀 더 깊이 있게 음미함으로써 3설이 과연 정립(鼎立)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제4장에서는 논자가 추가적으로 밝혀낸 사실에 근거하여 3설이 호환(互換)될 수 있는지도 타진해보고자 한다.

### III. 삼설의 정립(鼎立)

여기에서 ‘삼설의 정립’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현재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박태원, 김영일, 김태수 등 3인의 연구가 타설을 방해하지 않고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논자는 이를 위해서 그들의 논문과 저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 있는데, 검토하는 순서는 그들의 연구성과가 학계에 등장한 때를 기준으로 하였다.

먼저, 박태원의 연구이다. 박태원은, 본인이 직접 기술한 바와 같이, 이 분야의 연구성과에 대해서 몇 차례의 발전이 있었다.<sup>16)</sup> 첫째, 그는 2004년에 「원효 화쟁사상의 보편원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거기에서 그는 인간사의 쟁론에 적용될 수 있는 화쟁의 원리로, 부분적 타당성을 변별하여 수용하기, 마

---

16) 박태원, 「원효 화쟁철학의 형성과 발전: 문 구분의 사유를 중심으로」, 『철학논총』90(경산: 새한철학회, 2017), pp.243-244.

음의 경지에 오르기,<sup>17)</sup>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sup>18)</sup>

그런데, 이러한 3가지 원칙은 앞에서 논자가 언급한 선행연구의 발전단계에 비추어 보면 제1기의 특징이 여전히 남아있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1기에 박종홍, 김선근, 최유진 등은 원효의 화쟁방법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특징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우리는 2004년 박태원의 연구에서도 그와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박태원은 2013년에 「원효의 화쟁논법과 쟁론치유」라는 논문을 발표하였고<sup>19)</sup> 같은 해에 『원효의 십문화쟁론』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였다.<sup>20)</sup> 여기에서 그는 원효의 화쟁방법에 대해서 발전된 자신만의 독특한 사유를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그는 자신이 2004년 논문에서 말한 3가지 원리들 중에서 ‘부분적인 타당성을 변별하여 수용하기’라는 원리를 특히 발전시켰던 것이다.

즉, 그는 원효가 화쟁하면서 언급하였던 ‘문(門)’이라는 용어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그는 이것을 ‘견해의 계열’, ‘일련의 타당한 인과계열’ 혹은 ‘조건적으로 타당한 의미맥락’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처럼 ‘문(門)’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의존하는 성질’은 붓다의 연기법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하였는데, 결국 원효의 화쟁방법은 붓다의 연기법에 근거한다는 점을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셋째, 박태원은 2017년에 「원효 화쟁철학의 형성과 발전: 문 구분의 사유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하고<sup>21)</sup> 같은 해에 『원효의 화쟁철학』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였다.<sup>22)</sup> 여기에서, 그는 지금까지 원효의 화쟁방법에 관한 자신의 논

17) 이 중에서, ‘일심의 경지’는 사변적 인식의 범주를 초탈하는 수준을 전제로 하기에 화쟁의 일반원리로 자리를 잡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지만, 화쟁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삶의 과제라고 한다. 박태원, 앞의 논문, 『철학논총』38, p.42 참조.

18) 박태원, 앞의 논문, 『철학논총』38, p.34.

19) 박태원, 「원효의 화쟁논법과 쟁론치유」, 『불교학연구』35(대구: 불교학연구회, 2013), pp.99-138.

20) 박태원은 이 저서의 ‘제4장 견해의 배타적 주장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 화쟁논법과 쟁론의 치유-’에서 원효의 화쟁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박태원, 『원효의 십문화쟁론』(서울: 세창출판사, 2013), pp.173-217 참조.

21) 박태원, 앞의 논문, 『철학논총』90, pp.239-262.

22) 박태원, 『원효의 화쟁철학』(서울: 세창출판사, 2017), pp.1-231.

의를 정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원효가 말한 ‘문(門)’이라는 용어를 중시하여, 원효의 화쟁방법의 핵심을 ‘문(門) 구분의 사유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문(門)의 사유’는, 직접적으로 『대승기신론』의 ‘일심이문(一心二門)’에서 연유하였고, 이 일심이문은 붓다의 연기설이 가지는 두 측면을 마음에 대한 통찰에 의거하여 재구성한 것이라고 한다. 즉, 근본무지를 조건으로 한 인과적인 경험의 발생과 소멸을 붓다의 연기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재구성한 것이 바로 『대승기신론』의 ‘일심이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원효는 이 ‘일심이문’에서 포착한 진여문과 생멸문의 사유방식을 『대승기신론』을 해설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문(二門)’으로 제시하였다고 한다. 나아가 불교교학을 통섭적으로 이해하고 상이한 견해와 이론들의 배타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 『십문화쟁론』, 『열반중요』, 『금강삼매경론』, 『이장의』를 비롯한 자신의 여러 저서에서 다양한 ‘이문’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김영일의 연구를 살펴보자. 그는 2008년에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화쟁의 실례를 중심으로」이라는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 이후에 화쟁사상에 관하여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2019년에는 자신의 박사학위논문과 연구 논문들을 수정·보완하여 『화쟁사상』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이 저서에 담겨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의 연구를 살펴보고 있다.

김영일 연구의 핵심은 원효의 현존본에 있는 ‘화쟁사례’들을 분석하여 거기에서 화쟁방법을 추출한다는 점이다. 이 ‘화쟁사례’는 제설의 입장을 제시하는 [입론], 서로 공방을 벌이는 [논란], 원효의 판단을 천명하는 [평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평결]은 다시 판단의 요지를 선언하는 ‘주문(主文)’, 그 까닭을 설명하는 ‘이유(理由)’, 그러한 결론의 논거를 제시하는 ‘문증(文證)’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3)</sup>

여기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평결]의 ‘주문’에서 원효는 주어진

논제에 대해서 일정한 유형으로 판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결]의 ‘이유’에서는 그가 그렇게 판정을 내린 까닭을 설명하는데, 이때에 반드시 화쟁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원효는 화쟁사례에서 일정한 유형의 판정을 내리고 그 유형에 따른 일정한 화쟁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표 1> 판정의 유형별 태도<sup>24)</sup>

	판정의 태도	사례수
유형1	일반상식(一般常識) 판정	10
유형2	제설개시(諸說皆是) 판정	47
유형3	개시개비(皆是皆非) 판정	8

위의 <표 1>은 [평결]의 ‘주문’에서 원효가 판정을 내리는 태도를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중에서 유형1은 일반논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판정이어서 더 이상 분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형2는 ‘제설이 모두 옳다’는 것이고, 유형3은 ‘제설이 옳고 그르다’는 판정이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그래서 이 유형2와 유형3의 경우를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표 2> 판정유형2에서의 화쟁방법<sup>25)</sup>

	화쟁방법	사례수
방법1	단일한 기준	23
방법2	복수의 기준	26
(*)	중복된 경우	2

위의 <표 2>는, 원효가 <표 1>에서 말한 유형2의 판정을 내린 경우에 2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화쟁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원효가 [평결]의 ‘주문’에서 ‘제설이 모두 옳다(諸說皆是)’는 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반드시 [평결]의

23) 김영일, 『화쟁사상』(서울: 혜안출판사, 2019), pp.39-104.

24) 앞의 책, p.106.

25) 앞의 책, p.115.

‘이유’에서 ‘단일한 기준’을 설정하여 제설을 회통하기도 하고, ‘복수의 기준’을 설정하여 제설을 회통하기도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단일한 기준’이란, 회통의 이유를 밝히는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一門]’만을 제시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회통하는 화쟁방법을 말한다.<sup>26)</sup> 또한, ‘복수의 기준’이란, 회통의 이유를 밝히는데 있어서 ‘두개의 기준[二門]’을 제시하여 회통하는 화쟁방법을 말한다.<sup>27)</sup> 표에 의하면, 원효는 ‘단일한 기준’이라는 화쟁방법과 ‘복수의 기준’이라는 화쟁방법을 비슷한 빈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판정유형3에서의 화쟁방법<sup>28)</sup>

	화쟁방법	사례수
방법1	자재의 논리	8
방법2	언어의 초월	2
(*)	중복된 경우	2

위의 <표 3>은, 원효가 <표 1>에서 말한 유형3의 판정을 내린 경우에 2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제설을 화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원효가 [평결]의 ‘주문’에서 ‘제설이 옳고 그르다(皆是皆非)’는 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반드시 원효가 [평결]의 ‘이유’에서 ‘자재의 논리’라는 화쟁방법과 ‘언어의 초월’이라는 화쟁방법을 사용하여 제설을 회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재의 논리’란, 긍정[肯]과 부정[否], 있음[有]과 없음[無], 같음[同]과 다름[異]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화쟁하는 방법을 말한다.<sup>29)</sup> 또한, ‘언

26) 예를 들면, 『열반종요』에서 ‘무엇이 성정불성(性淨佛性)인가?’라는 논제에 대해서 일승설, 인연설, 공설, 지혜설, 실의설, 아견설 등 총6설이 주장을 하자, 원효는 ‘자성이 청정한 진여의 불성’이라는 단일한 기준에 모두 적합하므로 모두 옳다고 회통한다. 앞의 책, pp.117-118 참조.

27) 예를 들면, 『법화종요』에서 ‘방편은 삼승인가, 이승인가?’라는 논제에 대해서 삼승설과 이승설이 논쟁을 하자, 원효는 별교삼승(別敎三乘)과 통교삼승(通敎三乘)이라는 복수의 기준을 제시하며, 별교삼승의 입장에서는 삼승설이 옳고, 통교삼승의 입장에서는 이승설이 옳다고 회통한다. 앞의 책, pp.119-121 참조.

28) 앞의 책, p.128.

어의 초월'이란, 원효가 논쟁의 당사자들에게 언어에 대한 집착을 벗어날 것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화쟁하는 방법을 말한다.<sup>30)</sup> 표에 의하면, 원효는 '자재의 논리'라는 화쟁방법을 '언어의 초월'보다 훨씬 자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김태수의 연구를 살펴본다. 김태수는 2018년에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사구(四句) 논리를 중심으로』라는 글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하였다.<sup>31)</sup> 그는 이 글에서, 원효의 화쟁방법의 핵심으로 '사구(四句)의 논리'를 지목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 사구의 논리는 원래 인도의 고전철학에서 기원하고 붓다가 즐겨 사용한 것인데, 이것이 인도와 중국을 거쳐 원효에 이르러 발전된 모습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사구(四句)'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한 4 종류의 철학적 명제를 가리키는데, 제1구 유(有), 제2구 무(無), 제3구 역유역무(亦有亦無, 제1·2구의 긍정), 제4구 비유비무(非有非無, 제1·2구의 부정)로 표현된다. 김태수는 전통적으로 불교의 중관논리와 관련이 깊은 이러한 사구의 논리와 관련하여 원효의 화쟁논법에 대해서 다음의 3가지 사항을 강조하였다.

첫째, 나가르주나의 논법은 사구가 서로 호환되지 않는데, 원효의 화쟁논법은 사구가 서로 호환 가능하다. 즉, 나가르주나는 부정어가 술어를 한정함으로써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3구와 제4구가 호환되지 않는다. 하지만 원효의 화쟁논법은 부정 대상만을 제외하는 명사부정을 통해 긍정을 함축하는 방식이므로, 제3구와 제4구가 서로 부정을 통해서 호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32)</sup>

둘째, 대다수의 동아시아 불교논사들은 제4구를 궁극적인 진리로 보는데,

29) 예를 들면, 『열반중요』에서 '보신은 상주하는가? 무상하는가?'라는 화제에 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논의를 하는데, 원효는 먼저 양설을 부정하고 나중에는 양설을 긍정하는 것과 같이 긍정과 부정을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양설을 회통하고 있다. 앞의 책, pp.130-132 참조.

30) '말만을 취하면 양설이 그르게 되지만, 뜻으로 이해하면 양설이 옳게 된다'고 말한 것과 같이, 양설이 모두 성전에 의거하여 주장하므로 모두 옳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뜻을 새길 때 그렇다는 것이지, 문자에 집착하면 모두 틀리게 된다는 것이다. 앞의 책, pp.146-148 참조.

31) 김태수, 앞의 논문, pp.1-284.

32) 앞의 논문, pp.18-21.

원효는 제4구에 실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동아시아 불교학파들은 제4구를 승의적 이상에 두고, 속제에서 나머지 입장의 모순을 조화시키는데 있어서 각 구를 단계별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원효의 화쟁논법은 실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차이를 긍정하는 것일 뿐 어느 구도 절대적 진리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sup>33)</sup>

셋째, 원효의 화쟁논법은 모두 불가언설에 이르기 위해서 사구의 논리를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원효가 사구의 논리라는 화쟁논법을 종횡으로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목적은 절대적인 진리를 직접적으로 표상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효가 사용하는 사구의 논리는 승의로서의 불가언설적인 실재를 단지 가설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는 것이다.<sup>34)</sup>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그는 원효의 사구의 논리를, ‘조망점에 따른 종합 방식(수렴)’과 ‘부정을 통한 긍정 방식(발산)’으로 분류하는데,<sup>35)</sup> ‘부정을 통한 긍정 방식’의 경우, 『금강삼매경론』 등을 중심으로 불교논리와의 연계성을 논의한다. 또한, 화쟁논법의 방법론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본업경소』 등을 통해서 살펴보고,<sup>36)</sup> 구조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십문화쟁론』 등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다.<sup>37)</sup>

이상, 최근 3인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요컨대, 김영일의 연구는 화쟁방법의 ‘형식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원효는 ‘제설은 모두 옳다’ 혹은 ‘제설은 옳고 그르다’는 판정을 주로 내리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단일한 기준’ 혹은 ‘복수의 기준’이라는 화쟁방법을 사용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자재의 논리’ 혹은 ‘언어의 초월’이라는 화쟁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박태원과 김태수는 화쟁방법의 ‘내용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

---

33) 앞의 논문, pp.21-23.

34) 앞의 논문, p.255.

35) 앞의 논문, pp.24-79.

36) 앞의 논문, pp.80-129.

37) 앞의 논문, pp.130-192.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박태원은 화쟁할 때 사용하는 ‘문(門)’이란 용어는 ‘연기설’에서 기원하여 『대승기신론』의 일심이문을 거쳐 원효에 의해서 사용되었다고 하며, 김태수는 화쟁할 때 사용하는 ‘사구(四句)의 논리’는 ‘중도설(중관의 논리)’에서 기원하여 나가르주나를 거쳐 원효에 의해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원효의 화쟁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구한 최근 3인의 연구성과가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우리는 김영일의 연구에 의해서, 원효의 화쟁방법에 관한 전체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게 된다. 즉, 원효가 제설을 화쟁할 때는 2가지 경우의 판정을 내리는데, 각각의 경우에 반드시 거기에 해당하는 화쟁방법을 사용하여 제설을 화쟁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첫째 ‘제설이 모두 옳다’는 판정을 내릴 때에는, 김영일에 의하면, 원효는 반드시 ‘단일한 기준[一門]’과 ‘복수의 기준[二門]’으로 제설을 화쟁한다고 한다. 그리고 바로 이 경우에 등장하는 ‘문(門)’의 의미에 대해서는, 박태원에 의하면, 『대승기신론』에 등장하는 일심(一心), 진여문(眞如門), 생멸문(生滅門)에 대한 원효의 통찰에서 나온 것이며, 나아가 이는 붓다의 연기설에서 기원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제설이 옳고 그르다’는 판정을 내리면, 김영일에 의하면, 원효는 반드시 ‘자재의 논리’나 ‘언어의 초월’이란 방법으로 화쟁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자재의 논리’와 관련 깊은 ‘사구의 논리’에 대해서, 김태수에 의하면, 원효는 나가르주나가 사용하던 중관의 논리와 『중변분별론』 등에서 사용된 유식의 중도설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사용하였는데, 이는 붓다가 즐겨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 IV. 삼설의 호환(互換)

제3장에서, ‘삼설은 타설을 방해하지 않고 정립될 수 있다’는 취지의 논의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논쟁이 실제로 발생하였고 누군가 그 논쟁을 화쟁하려고 하는 경우에, 앞의 3인이 명확하게 밝혀놓은 화쟁 방법들을 ‘서로 바꾸어 활용할 수도 있는가?’ 이점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논자는 이러한 의미로 편의상 ‘삼설의 호환’이라는 말을 제4장의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호환’은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형식적인 측면으로는 김영일이 말한 2가지 유형의 판정을 서로 바꾸어서 화쟁할 수도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며,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박태원이 말한 ‘문(門)의 사유’와 김태수가 말한 ‘사구(四句)의 논리’를 서로 바꾸어서 화쟁할 수도 있는지를 탐색해 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탐색을 위해서, 우리는 이 문제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는 추상적인 예시를 상정하고 그 가능성 여부를 상상하며 논의를 전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원효가 같은 주제를 놓고 다른 저서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화쟁한 경우가 실제로 있다면, 우리는 이 질문의 대답에 훨씬 수월하게 그리고 훨씬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논자는 원효의 저서에서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견한 적이 있다. 바로 원효가 불신(佛身)에 관해서 논의하는 장면에서 였다. 원효는 ‘보신불(報身佛)은 상주(常住)한가? 무상(無常)한가?’하는 점에 대해서 『십문화쟁론』과 『열반중요』에서 각각 논의하여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2곳에서 화쟁한 방법이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먼저, 『십문화쟁론』에 등장한 부분을 살펴보자. 원효가 『십문화쟁론』에 기록한 내용은 오늘날 그대로 전하지는 않지만, 다행히 견등의 『대승기신론동이익집』에 그 내용이 일부 인용되어 전하고 있다.<sup>38)</sup> 더구나 오늘날 남아있는

38)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다. 14세기 초까지는 일본불교문헌에 흥복사 ‘지경(智敬)’이 저술하였다고 하였고, 19세기 이후에는 신라의 ‘견등(見登)’이 저술하였다고 하며, 1930년대에는 ‘지경이 저술하고 견등이 보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2001년에 최연식은 8세기 후반에 일본 동대사의 승려 ‘지경’이 저술하였다고 하고, 2005년 이정희는 ‘견등이 저술하고 지경이 보충하

부분은 소위 ‘화쟁사례’의 [평결]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원효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유형의 평결을 내리고 어떠한 화쟁방법을 사용하였는지 뚜렷하게 알 수가 있다.

- ① 구룡(원효)은 화쟁론에서 말하였다. “대저, 부처의 경지에서 갖는 온갖 공덕은 대체로 2가지 문이 있다. 만약, ‘원인에 따라서 생겨난다는 문[從因生起之門]’에서 본다면, 보신불의 공덕은 찰나에 생멸하는 것이니, 앞의 논사에 의해서 말해진 것은 바로 이러한 문을 취한 것이다.
- ② 만약 ‘원인과 무관하게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문[息緣歸原之門]’에서 본다면, 보신불의 공덕은 당연히 상주하는 것이니, 뒤의 논사에 의해서 말해진 것은 또한 이러한 문을 취한 것이다. 각각의 공덕을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문이 존재하는 것이니, 이 두 가지 문은 서로 통하고 위배되지 아니하다.<sup>39)</sup>

여기에서, 원효는 양설이 모두 옳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즉, ①에서는, 부처의 2가지 공덕 중의 하나에 의하면 무상설(無常說)은 옳게 된다고 말한다. 즉, 부처의 공덕 중에 ‘원인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從因生起之門]’이 있는데, 이 문은 ‘발생’에 주안점이 있어서 보신불의 공덕은 찰나에 생멸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앞의 논사가 주장한 무상설은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②에서 원효는, 부처의 2가지 공덕 중의 다른 하나에 의하면 상주설(常住說)도 옳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부처의 공덕 중에 ‘원인과 무관하게 근원으로 돌아가는 문[息緣歸原之門]’이 있는데, 이 문은 ‘근원’에 주안점이 있어서 보신불의 공덕은 생멸을 여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뒤의 논사가 ‘보신불은 상주한다’고 주장한 상주설도 성립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었다’고 주장하였다. 최연식, 「신라 건국의 저술과 사상경향」, 『한국사연구』 115(서울: 한국사연구회, 2001), pp.1-37; 이정희, 「대승기신론동이약집 저자문제에 대해서」, 『한국불교학』 41(서울: 한국불교학회, 2005), pp.87-150 참조.

39) 『大乘起信論同異略集』(H3), p.695上, “丘龍和諍論云 夫 佛地萬德略有二門 若從因生起之門 報佛功德剎那生滅 初師所說且得此門 若就息緣歸原之門 報佛功德凝然常住 後師所說亦得此門 隨一一德有此二門 二門相通不相違背.”

그렇다면, 인용문을 좀 더 검토해 보자. 먼저, 형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화쟁사례를 통하여 화쟁방법을 연구한 김영일에 의하면, 원효는 [평결]의 ‘주문’ 부분에서 주어진 논제에 대한 판단의 요지를 선언한다고 한다. 그런데, 『대승기신론동이약집』에 인용된 글에는 해당문장이 생략되었지만, 위 인용문을 참고해 보면 ‘양설이 모두 맞다’는 판정이 내렸을 것으로 어렵지 않게 추정된다.

또한, 김영일에 의하면 이러한 ‘제설이 모두 옳다’는 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평결]의 ‘주문’ 부분에서 원효는 반드시 ‘단일한 기준[一門]’ 혹은 ‘복수의 기준[二門]’을 설정하여 화쟁한다고 한다. 그런데, 위 인용문 ①에서는 ‘원인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을 설정하고 ②에서는 ‘원인과 무관하게 근원으로 돌아가는 문’을 설정하고 있어서 ‘복수의 기준’으로 화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박태원은 원효가 ‘일련의 타당한 인과 계열’ 혹은 ‘조건적으로 타당한 의미맥락’을 의미하는 ‘문(門)’을 설정하여 제설을 화쟁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인용문 ①에서는 ‘원인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從因生起之門]’이라는 문(門)이, ②에서는 ‘원인과 무관하게 근원으로 돌아가는 문[息緣歸原之門]’이라는 문(門)이 등장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sup>40)</sup>

또한, 박태원은 이 ‘문(門)의 사유’가 붓다의 연기설을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재구성한 『대승기신론』의 ‘일심이문’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인용문을 보면, ‘원인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은 현상적인 측면이어서 생멸문을 가리키고 있고, ‘원인과 무관하게 근원으로 돌아가는 문’은 본질적인 측면이어서 진여문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sup>41)</sup>

다음, 『열반종요』에 등장한 부분을 살펴본다. 원효가 『열반종요』에 기록한 내용은, 오늘날 극히 일부뿐만 발견된 『십문화쟁론』과 달리, 오늘날까지 그대

40) 실제로 박태원은 자신의 논문에서 원효가 ‘문(門) 구분의 사유방식’에 의해서 화쟁하였다는 것을 논하면서 위의 인용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박태원, 앞의 논문, 『철학논총』90, p.256 참조.

4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위 인용문에서 원효가 양설을 화쟁한 요지는, ‘현상적으로는 무상설이 옳고, 본질적으로는 상주설이 옳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로 보존되어 있어서 우리는 자세히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원효는 ‘보신불은 상주(常住)하는가? 무상(無常)한가?’하는 주제에 대해서 열면 논의를 전개한 뒤에, 다음과 같이 상주설과 무상설을 화쟁하고 있다.

- ① 묻는다. 두 논사의 말씀에 어떠한 이득과 손실이 있는가? 대답한다.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모든 말씀에 소득과 손실이 있다. 왜냐하면, 만일 결정적으로 한쪽만을 고집하면 모든 말씀에 손실이 있고, 만일 아무런 장애 없이 말하면 모두 도리가 있기 때문이다.
- ② 『능가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여래·응공·정변지, 이분들은 상주합니까? 무상합니까?’하였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상주하지도 무상하지도 아니하다. 왜냐하면, 양쪽에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고 하고 내지 자세히 말씀하셨다. 이제, 여기서 비록 ‘보신은 상주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한 순간에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와 같은 문구들은 그 치우쳐진 집착을 깨뜨리고 있으니, 반드시 한쪽만을 취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 ③ ①·장애 없이 말하면, 양설이 모두 도리가 있다’는 것은 어떠한 말인가? 보신의 공덕은 형상을 떠나고 본성도 떠나있다. 형상[相]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하고 소멸하는 모습을 떠나고 마침내 고요하여 무엇을 만드는 행위가 없다. 그러기에 ‘상주’라고 말한다. ①본성[性]을 떠났기 때문에, 상주하는 본성을 떠나고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무엇도 만들지 못하는 행위가 없다. 그러기에 ‘무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본성을 떠났다는 것과 모습을 떠났다는 것은 다르지도 않고 구별되지도 아니하다. 모습을 떠나는 것은 본성을 떠나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상주는 생멸을 방해되지 아니한다. 본성을 떠나는 것은 모습을 떠나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생멸이 상주를 막지 아니한다. 이런 도리로 말미암아, 양설은 모두 소득이 있다. 이를 자세히 알려고 하는 데에 많은 곳이 있으나, 『능가경중요』 가운데 자세히 말하였다.<sup>42)</sup>

42) 『涅槃宗要』(H1), p.537中, “問二師所說 何得何失 答或有說者 皆得皆失 所以然者 若決定執一邊 皆有過失 如其無障礙說 俱有道理 如楞伽經云 如來應供正遍知 爲是常耶 爲無常耶 佛言 非常非無常 二邊有過故 乃至廣說 今此言雖不常住 非念念滅 如是等文 破其偏執 定取一邊 不當道理 無障礙說 二義皆得者 報佛功德 離相

①에서 원효는, 상주설과 무상설이 ‘모두 옳고 그르다’고 선언하고 있다. 즉, 만일 결정적으로 한쪽의 주장만을 고집하면 양설이 모두 그르게 되고, 만일 아무런 장애 없이 말하면 양설이 모두 옳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효는 도대체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일까? ‘모두 그르다’는 결론과 ‘모두 옳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사정은 바로 이어서 등장한다.

②에서는, ‘양설이 모두 그르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즉, 『능가경』에서 부처님께서 “여래는 상주하지도 않고, 무상하지도 아니하다”고 하여 양설을 부정하였다고 제시한다. 그리고 ‘상주’와 ‘무상’이란 말은 어디까지나 중생들의 집착을 깨뜨리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한 말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무상’을 말할 때에도 ‘순간적인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③에서는, ‘양설이 모두 옳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㉔에서는, 원래 보신의 공덕은 형상[相]을 떠나있기에 발생하고 소멸하는 모습을 떠나고, 그러기에 고요하여 무엇을 만드는 행위가 없으며, 그러기에 보신불은 ‘상주’하다고 한다. ㉕에서는, 원래 보신의 공덕은 본성[性]을 떠나있기에 항상 머무는 본성을 떠나고, 그러기에 활발히 움직여서 만들지 못하는 행위가 없으며, 그러기에 보신불은 ‘무상’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인용문을 좀 더 검토해 보자. 형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화쟁사례를 주로 연구한 김영일에 의하면, 원효는 일반적으로 [평결]의 ‘주문’ 부분에서 주어진 논제에 대한 판단의 요지를 선언한다고 한다. 그런데, 위 인용문의 ①에서 ‘모든 말씀에 소득과 손실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서, 원효는 3가지 유형의 판정 중에서 판정유형 3에 해당하는 판정을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김영일은 판정유형 3의 ‘제설이 옳고 그르다’는 판정을 내린 경우에

---

離性以離相故 離生滅相 究竟寂靜 無作無爲 故說常住 以離性故 離常住性 最極喧動 無所不爲 故說無常 然離性離相無二無別 離相不異於離性故 常住不妨於生滅也 離性不異於離相故 生滅不礙於常住也 由是道理二說皆得 於中委悉 亦有多門 具如楞伽經宗要中說。”

는, 원효가 [평결]의 ‘이유’ 부분에서 반드시 ‘자재의 논리’ 혹은 ‘언어의 초월’이라는 방법으로 화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위 인용문 ②에서는 양설을 부정하고 있고 ③에서는 양설을 긍정하고 있어서, 긍정과 부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소위 ‘자재의 논리’로 화쟁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김태수는 원효가 제1구 유(有), 제2구 무(無), 제3구 역유역무(亦有亦無, 제1·2구의 긍정), 제4구 비유비무(非有非無, 제1·2구의 부정)로 표현되는 사구(四句)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위 인용문에서 원효는 상주설이라는 유설(有說, 제1구)과 무상설이라는 무설(無說, 제2구)에 대해서 긍정(제3구)과 부정(제4구)을 사용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sup>43)</sup>

또한, 김태수는 중관논리와 관련이 깊은 이러한 사구의 논리와 관련하여 원효 화쟁논법의 특징들을 지적하였는데, 그 중에는 제3구와 제4구가 서로 호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는 위 인용문 ③에서, “본성을 떠났다는 것과 모습을 떠났다는 것은 다르지도 않고 구별되지도 아니하다. ... 이런 도리로 말미암아, 양설은 모두 소득이 있다”는 언급에서, 이점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원효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화쟁한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근거로 추리해 볼 때, 원효의 화쟁방법에 관한 최근 3인의 연구결과는 서로 호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형식적으로는 김영일이 말하는 2가지 경우의 화쟁방법이 서로 호환될 수 있고, 내용적으로는 박태원과 김태수가 말하는 화쟁방법이 서로 호환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화쟁하는 사람은 ‘제설이 모두 옳다’는 판정과 ‘제설이 옳고 그르다’는 판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리하여

43) 김태수는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원효가 ‘사구(四句)의 논리’에 의해서 화쟁하였다는 것을 논하면서 위의 인용문을 실제로 제시하고 있다. 김태수, 앞의 논문, pp.180-183 참조.

만약에 ‘제설이 모두 옳다’는 판정을 한 경우에는 ‘단수의 기준’이나 ‘복수의 기준’을 사용하여 화쟁할 수 있고, ‘제설이 옳고 그르다’는 판정을 한 경우에는 ‘자재의 논리’나 ‘언어의 초월’을 사용하여 화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화쟁하는 사람은 제설을 화쟁할 때에 사상적 근원으로서 연기설과 중도설(중관의 논리)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리하여 만약에 연기설을 선택한 경우에는 ‘문(門)의 사유’라고 하는 화쟁방법을 사용하여 화쟁할 수 있고, 중도설(중관, 유식 등의 논리)을 선택한 경우에는 ‘사구(四句) 논리’라고 하는 화쟁방법을 사용하여 화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논자는 박태원, 김영일, 김태수 등 최근 3인이 발표한 원효의 화쟁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화쟁방법에 관한 연구 중에서 각자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풍부한 내용을 제시한 최근의 연구를 접하면서, 과연 이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 연구가 이제 마무리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효의 화쟁방법에 관한 선행연구는 ‘내용상 발전’이라는 기준으로 총3기로 정리할 수 있었다. 제1기에서는 박종홍, 김선근, 최유진 등이 원효의 화쟁방법의 특징적인 요소를 하나하나 나열하였으며, 제2기에서는 오성환, 김형효, 사토 시케끼 등이 화쟁의 최고원리를 탐구하였다. 그리고 제3기에서는 박태원, 김영일, 김태수 등이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다양하면서도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최근 3인의 연구가 서로 타설을 방해하지 않고 자설의 영역을 각자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먼저 3인의 연구는 각자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박태원은 붓다의 ‘연기설’에서 연원하는 ‘문(門)의 사유’를 밝혔고, 김영일은 화쟁방법의 전반적인 모습을 밝히기 위해서

‘화쟁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김태수는 ‘중도설’에서 연원하는 ‘사구(四句) 논리’를 밝혔다.

나아가, 최근 3인의 연구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 즉, 원효의 화쟁방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김영일의 연구에는 2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제설이 모두 옳다’의 경우는 연기설에 근원을 둔 ‘문의 사유’에 대해서 탐구한 박태원의 연구와 관련이 깊었다. 그리고 ‘제설이 옳고 그르다’의 경우는 중도설(중관의 논리)에 연원을 둔 ‘사구 논리’에 대해서 연구한 김태수의 연구와 관련이 깊었다.

셋째, 최근 3인의 연구는 타설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해 보았다. 마침, 논자는 원효가 ‘보신불은 상주(常住)한가? 무상(無常)한가?’와 같은 동일 주제에 관해서 『십문화쟁론』과 『열반종요』에서 원효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화쟁한 글을 발견한 바 있었다. 이 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3인의 연구결과는 서로 호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형식적으로는 김영일이 말하는 ‘제설이 모두 옳다’는 판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화쟁방법과 ‘제설이 옳고 그르다’는 판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화쟁방법은 서로 호환되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박태원이 말하는 연기설을 근거로 하는 ‘문(門)의 사유’라는 화쟁방법과 김태수가 말하는 중도설을 근거로 하는 ‘사구(四句) 논리’라는 화쟁방법은 서로 호환될 수 있다고 보았다.

---

## 참고문헌

---

### 1. 약호 및 원전자료

- 『涅槃宗要』(H1)
- 『法華宗要』(H1)
- 『大乘起信論同異略集』(H3)

### 2. 2차 자료

#### <단행본>

- 김영일, 『화쟁사상』, 서울: 혜안출판사, 2019.
- 박태원, 『원효의 십문화쟁론』, 서울: 세창출판사, 2013.
- \_\_\_\_\_, 『원효의 화쟁철학: 문 구분에 의한 통섭』, 서울: 세창출판사, 2017.

#### <논문>

- 김선근, 「원효의 화쟁논리 소고」, 『논문집』제2집, 경주: 동국대학교 경주대학, 1983, pp.15-28.
- 김영일,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화쟁의 실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8, pp.1-340.
- 김운학, 「원효의 화쟁사상」, 『불교학보』제15집,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78, pp.173-182.
- 김태수,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사구(四句) 논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pp.1-284.
- 김형효, 「텍스트 이론과 원효사상의 논리적 독법」, 『원효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p.215-222.
- 김형효, 「원효의 화쟁적 사유와 대승적 세상보기에 대한 이해」, 『정신문화연구』제25집 2호,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pp.107-148.
- 박종홍, 「원효의 철학사상」, 『한국사상사: 불교사상편』, 서울: 서문당, 1972, pp.87-132.
- 박태원, 「원효 화쟁사상의 보편원리」, 『철학논총』제38집, 경산: 새한철학회, 2004,

pp.23-53.

- \_\_\_\_\_, 「원효의 화쟁논법과 쟁론치유」, 『불교학연구』제35집, 대구: 불교학연구회, 2013, pp.99-138.
- \_\_\_\_\_, 「원효 화쟁철학의 형성과 발전: 문 구분의 사유를 중심으로」, 『철학논총』제90집, 경산: 새한철학회, 2017, pp.239-262.
- 사토 시케끼(佐藤繁樹), 「원효에 있어서 화쟁의 논리: 금강삼매경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 동국대학교대학원, 1993, pp.1-278.
- 이정희, 「대승기신론동이약집 저자문제에 대해서」, 『한국불교학』제41집, 서울: 한국불교학회, 2005, pp.87-150.
- 최연식, 「신라 견등의 저술과 사상경향」, 『한국사연구』제115집, 서울: 한국사연구회, 2001, pp.1-37.
- 최유진, 「원효에 있어서 화쟁과 언어의 문제」, 『철학논집』제3집, 창원: 경남대학교, 1987, pp.29-49.
- \_\_\_\_\_, 「원효의 화쟁방법」, 『백련불교논집』제1집, 합천: 백련불교문화재단, 1991, pp.247-269.

## The Review on Wonhyo's Methods of Harmonization - Focused on the recent studies of the three researchers

Kim, Yeongil  
Lecturer  
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is reviewing the studies on Wonhyo's method of harmonization with a focus on the recent studies of three researchers, Park Tae-won, Kim Yeong-il and Kim Tae-soo.

First, I have arranged the studies so far in this field in terms of 'content development process'. They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In the first period, Park Jong-hong, Kim Sun-geun, and Choi Yoo-jin listed the characteristic elements, in the second period, Oh Sung-hwan, Kim Hyung-hyo and Sato Shikeki explored the best principles, and in the third period, Park Tae-won, Kim Yeong-il and Kim Tae-soo presented various concepts.

Second, the recent studies by the three researchers revealed that they could support one another. Kim Yeong-il empirically revealed the general details on Wonhyo's method of harmonization, Park Tae-won had a deep discussion on the methods based on the theory of dependent origination, and Kim Tae-soo had a deep discussion on the method based on the theory of middle way.

Third, the recent studies by the three researchers revealed that they could be compatible with each other. Kim Yeong-il's methods used when judging "all are right" is compatible with his methods used when judging "all are right and wrong." Also, Park's methods based on the theory of dependent origination and Kim's methods based on the theory of middle way can be compatible.

Keywords

Korean Buddhism, Wonhyo, The Theory of Harmonization, The Method of Harmonization,  
The Aspect (方面), The Case of Harmonization, The Four Phrases (四句)

2019년 08월 02일 투고

2019년 09월 22일 심사완료

2019년 09월 23일 게재확정

